

“부정적인 마음이 불행 부른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7 긍정적 마음의 힘

모든 것에 부정적인 마음

H씨는 최근 이사는 옆집 애기엄마와 몇 번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무엇에 대해서든 항상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내는 것이었다.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다른 아파트보다 평수에 비해서 좁네요. 내부도 원가 모자란 것 같고.” H씨는 똑같은 평수이지만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면 적은 없었다.

아마 처음이어서 힘들겠지 하며 “그래도 여기는 주변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잖아요”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애기엄마는 “네에? 아니 이게 경치 좋은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요즘 전월주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교통 좋은 곳도 흔하고 흔하잖아요. 그걸 좋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무안해져서 할 말이 없었다.

남편 직장에 대해서는 “남들은 대기업이면 좋은 줄 알지만 천만에도 일만 죽도록 시키고 월급은 그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아유, 직장을 옮기든지 해야지, 아니면 돈 좀 더 모이면 그만두고 우리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했다.

위로해주려고 “그러세요. 하긴 아직 젊으시니 얼마든지 직장을 바꾸실 수 있겠네요. 자기 사업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자 애기엄마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새로 받아 주는

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 봤자 뻔하잖아요. 월급도 거기서 거길 거고.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속고 당하기 일쑤지요. 괜히 나섰다가 재산 다 없애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H씨는 속으로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면서’ 하고 어이가 없었다. 애기엄마를 만나면 아무리 잠시 얘기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단점을 지적하였고 불만이 있었다.

매사에 불평만 하는 이웃 통해

긍정적 마음의 중요성 깨달아...

“힘들수록 더욱 자비심 키워야”

마음의 입력과 출력

H씨는 어느 날 애기엄마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 무슨 인연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매사에 부정적이니 이제는 그를 멀리하거나 마주치게 되면 벌써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다. 피하고 싶었다. ‘아마 애기엄마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없을 거야.’

문득 애기엄마가 나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기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대해서도 나쁘게 말할 것이 틀림없었다.

지금까지 예외인 사람이 없었는데 나라고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갑자기 애기엄마가 불행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하면 모든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나 감사, 행복을 모르고 있다. 누구보다 불행한 것이다. 더구나 남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구어(口業)를 짓고 있는 셈이니 더욱 큰 일이 아닐까.

H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많이 반성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곱곰이 살펴보니 불평이나 비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고 아팠을까 하고 공감 이 되었다.

웃음 일이 생기려면

참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많은 데 굳이 어두운 마음으로 지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보니 애기엄마가 역행(逆行)보살로 나타나서 저의 스승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알게 되었어요’하며 환하게 웃는다.

“웃어야 웃음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라 말과 태도, 행동도 부정적이 된다. 마음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밝고 긍정적인 마음, 자비심의 힘으로 무장해 보면 어떨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고픈 어머니께 (상)

전우경 무안 교도소

어머님! 간밤의 꿈에 뵈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의 별들도 조는 깊은 밤이었습니. 고향에 가지 못한 겨울제비 같은 몸골로 낡은 사립문 앞으로 서서기릴 때 낙엽을 울리는 바람 소리처럼 아니 들리듯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 눈물 젖은 애절한 기도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십년 전 여원집 뒤척이며 첫 새벽 비몽사몽간에 들던 그 애절한 기도 소리를... 어머니,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끊임 없이 지는 간절한 기도소리 따라 허물어진 담장을 돌아 기도소리 가까운 담장 뒤에 숨어서 장독대에 꿇어 앉으신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깨달리소만 위 정화수에 비취진 별빛보다 더 파란 처연투박 아련 얼굴에 흰 머리카락.

“남들 눈에 한 송이 꽃이 되게 하여주시고, 부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비시던 옛날 그 지극한 정성의 이렇듯 소리를.

“가연은 제 자식에게 심오 척 높은 답장을 날아 날을 수 있게 잡자 리 날개라도 하나 달아 주옵소서.”

눈물인 듯 통곡인 듯 애절한 기도소리. 서럽도록 반가운 마음.

그러나 “어머님!” 하고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의 제가 아닌

제가 어머니 앞에 섰을 때 그대로 한 줌 재가 되어 허물어지고 말 것 같은 어머니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소리에 별들도 흐느끼는 새벽어둠이었던 모든 것 쏟아내려 하는 까치소리에 소스라쳐 눈을 뜨니 창살 너머 하늘빛이 어머니 눈시울처럼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시 생각만 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당신은 햇빛과 굶주리면서도 좋은 것으로만 먹이시고 입히시던 어머니. 즐거울 때나 기쁠 때는 까마득하게 당신을 잊고 있다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위험에 처할 때 비명처럼 당신을 찾으면 언제나 불현천 리 맨발로 달려오시던 어머니.

언젠가 돌아올 못한 자식 기다림에 해질녘 동구 밖 길을 서성시길 어머니. 노송까지 사이로 떠오른 보름달 같으시던 어머니. 마당가 복숭아처럼

곱디고운 그 얼굴에 어느 새 저승꽃이 만발해지고, 피꼬리가 시샘할 만큼 낭랑하시던 그 목소리는 어느새 설날 삭풍에 우는 문풍지가 되시더니요.

돌아가야 할 고향을 두고 밤새워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두고 돌아갈 수 없는 자식의 마음은 성터에 땅구는 낙엽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그러나 어찌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마다 꿈마다 어머니님! 그리워 햇빛 밝은 날이면 그림자 되고, 달 밝은 밤이면 별빛이 되어 어머니의 창가에서 서성일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으로 응어리진 어머니의 마음 뜨거운 눈물로 풀어 씻겨 드려야 할 육신은 여기 이렇게 꿈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목숨을 잃는 만큼 불탄 날개에 깃털이 돌아오지만 겨울이 오고 봄이 또 오면 창공을 날아오를 희망보다는 어머니를 놓아주시는 마음 어찌 하나입니까.

어머님! 밤마다 당신과 함께 별을 헤던 보랏빛 하늘 가득 길고 서러운 편지를 쓰던 서도 쓰는 대로 다 부치지 못하는 까닭은 편지받아 읽

으시는 어머니가 저보다 더 슬퍼하실까 두려울 때 문입니다.

못난 자식에게 답장 쓰시려고 뒤늦게 깨우친 서투른 글씨로 밤을 지새우며 답장 쓰실 어머니도 수 높은 언젠가 너머로 방울방울 흘리실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은 저의 품 속 같은 곳까지 붉게 물들이는 까닭입니다.

어머님께선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흠뻑 담아 제게 편지를 보내 주십니다. 손이 떨려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간강하, 맑은 잘 먹냐,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면회 자주 못가서 미안하다”는 등 언제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쓰신 편지를 볼 때면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슬픔이 밀려옵니다.

새벽달이 울면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해 주시며 출렁한 사람이 되라고 남모르게 뒤뜰 장독대 위에 정하수 파놓고 빌고 비시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 자식 된 마음의 정을 나누어 드리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 즐기며 살아온 지난날들... (계속)



그림: 문병성

언젠가 돌아올 못한 자식 기다림에

해질녘 동구밖 길 서성시길 어머니...

충청매일·옥천 대성사 주최 '수용자 효 문학작품' 공모 효 편지 우수상 수상작

산행개시판

- 조계사 대웅전 24시간 개방= 조계사가 6월 15 일(음력 5월 초하루)부터 대웅전을 24시간 개방 한다. 저녁 6시 저녁 예불 및 소창법문, 저녁 8시 ~밤 9시 50분 다라니기도(신묘장구대다라니)와 축원 밤 10~11시 50분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밤 12시~새벽 1시 50분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새벽 2~3시 50분 석가 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새벽 4시 새벽 예불로 진행된다. 15일 입재하는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악사예불정근, 아미타여 래불정근 기도를 연이어 100일씩 총 1000일 동안 칠야기도를 진행한다. 토·일요일도 평일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간 개방한다. (02)732-2187
- 도선사 108사할 순례=서울 도선사가 6월 108사 칠 성지순례를 양양 낙산사에 떠난다. 20~23일 낙 산사에서 진행되는 108사할 성지순례의 테마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이다. 테마에 맞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대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02)993-3161
- 월정사 단기불교학교 초등문화월정사 단기불교 학교 출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 됐다. 6월 22~24일 월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초등 문화는 2박3일간 108참회 좌선, 전나무 숲길 포행 울력, 상원사 적멸보궁 참배, 산행, 초등문화 회차 개정 및 향후 사업 일정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03)332-6661
- 남해 용문사 템플스테이=남해 용문사가 6월 23~24일 행복을 그리는 템플 14기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새벽예불과 참선, 숲길 산책, 울력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05)962-4425
- 용주사 여름 효행수련회=화성 용주사가 2007 용 주사 여름 효행 수련회 일정을 발표했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여름 효행 수련회는 7월 말 8월 초 에 개최된다.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수련회는 7월 28~29일 열린다. 성인 50명이 참가 할 수 있는 2차 수련회는 8월 2~4일, 청소년 50명 이 대상인 3차 수련회는 8월 9~11일 열린다. 선착 순 마감. (03)234-0040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정품 순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

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요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 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답사 있다. 전화(02)741-4477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은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삼재, 목삼재, 나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 화, 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재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 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내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음마니반머흠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일들이 신통모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음마니반머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음마니 반머흠 복지갑은 사용하신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모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법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금·은·나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음마니반머흠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순나노중지갑

여성용순나노장지갑